

『연세사랑 통신 동아라-자유발언대(민주광장) (go YONSEI)』 2551번 제 목:(前여성창조선본) 늦었지만 자보에
답합니다.

올린이:tobeno1 (김성은) 98/12/30 21:16 읽음: 13 관련자료 없음

안녕하십니까? 前여성창조 선본입니다.

총여 선거 후 학관과 도서관 등에 부착되었던 '여성창조 선본은 사과해야 합니다.'란 자보를 보셨습니까? 조금 늦었지만 이에 대한 여성창조 선본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사회학과 대학원 한 학우가 쓴 자보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여성창조 부후보의 3차 유세 연설에 대한 비판과 사과 촉구, 둘째, 여성창조 선본은 선거 때만 여성운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비판이었습니다.

첫째, 부후보의 연설 중에 나타난 과격한 표현과 학내 특정 여성운동 단체들을 언급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부후보의 표현을 배제하고, 연설문의 핵심 내용들만 살펴보자면, 그것들은 여성창조 선본의 토론을 통해 나온 상대 선본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었음을 밝힙니다. 여성창조 선본은 총여학생회가 총여학우들의 대의기구라는 것을 전제로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상대 선본의 Table 구성 제안은 총여학우들의 의사를 수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Table은 이상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학우들의 관심도와 참여도를 볼 때,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존의 여성 자치 단체 이외의 일반 학우들의 참여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내 여성운동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총여학생회와 총여학생회 예산의 주체는 일차적으로 여성자치단체가 아닌 연세 여학우입니다. 총여학생회의 활동과 예산들이 우선적으로 모든 여학우들의 복지와 권리보호를 위해 쓰여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성창조 선본은 Table 제도가 총여학생회의 활동이나 예산이 모든 여학우들을 위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여성창조 선본이 성폭력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불쌍한 고시동 남학우들을 옹호하는데 더 급급했기에 여성주의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점에 대해 분명히 아님을 밝힙니다. 적어도 연설을 처음부터 들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연설의 전체적인 맥락상, 그것이 이 사회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언급이 아님을 아셨을 것입니다. 부후보가 연설 초두에 우리나라 정계의 선거풍토를 개탄하며 죽 예를 든 것은, 선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고시동 사건이 일어난 것은 10월이었고 문제의 고시동 학우는 이미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은 좋지만, 다른 예가 많은데도 이미 지나간 사건이며, 더군다나 특정인과 특정공간이 지목되는 예를 내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토론의 내용을 연설문화 하는 과정에서, 급박한 유세 일정에 쫓긴 나머지, 정책팀이 미처 연설문을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친 표현들이 수정되지 못한 채로 연설 도중 나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바 몇몇 자치단체와 유권자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3차 유세 연설의 내용은 부후보 개인의 것이 아니라 여성창조 선본의 입장이었고, 이것이 발화되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유권자들과 특별히 연설 중 언급된 Beyond와 舊동쪽 여러분들께 이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둘째, 여성창조 선본은 결코 선거 때만 여성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보를 쓰신 분은 여성 자치단체 연석회의 등에 불참한 예를 들며, 여성창조 선본이 선거 때만 여성운동을 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두 후보와 여성창조 선본 운동원들은 기독교 여성 모임인 '마주잡기'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마주잡기'는 10대 총여학생회 선거 이후 지속적인 모임을 가져왔으나 학회 중심의 활동과 모임 초기의 과도기적 성격으로 인해 미처 자치 단체의 활동에 대표를 파견할 만한 역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임을 가지면서 모든 학우들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여학생회와 여성 운동의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문제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98년 2학기에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결집하게 되었고 결국 선거를 준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창조 선본은 선거에 맞추어 급조된 여성 운동 단체가 아님을 밝힙니다.

前 자보는 나누누리에 '여성창조 선본이 여성주의자가 아닌 이유 1, 2, 3'이란 제목으로 올린 글의 제목만 바꾼 것입니다. 1년 동안 열악한 상황에서도 모임을 가져온 저희들에게 이러한 표현은 매우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창조는 총여학생회를 통해 곳곳이 서서 모든 여학우들의 목소리를 담아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前여성창조 선본 정책팀 드림

토론하기(WITH 2 2) (65/102)

제 목: [초이] 처음으로 쓰네요.

올린이: 여성자치(tswith) 99.01.03 02:11:40 조회: 43

안녕하세요, 초이에요.

저번에 처음으로 들어와봤고, 오늘은 두번째인데, 저번에 글을 쓰다가 컴퓨터에문제가 있어서 다시 씁니다.

조만간 아이디어를 만들어야겠네요.

어제 여성행동 선본 뒷풀이 자리에서 기호 형의 글을 봤는데, 읽어보신 분 있지요?

모든 행사, 특히 선거를 하고 나면 다들 자신들에게 편한, 생각하기 편한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너무 게을렀다. 학생들이 탈정치화되어가고 있다. 학생운동이 망하고 있다....등등그러한 면에서 기호 형은 아주 예리하고 그리고 무섭기도 한 평가를 해준 것 같아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우리들 모두의 머리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고 학우들은 생각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도전을 찍은 것이 아니라, 도전은 신자유주의에 호소했고 학우들은 그들의 호소를 듣고 찍었다는 것....

총여는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한 흐름과 분위기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운동이 망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당빈 얘기인가를 생각하게 되는군요.

물론, 도전 팀이 운동권에 대한 반정립으로 나왔고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찍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대학사회의역사적 변화, 현재의 정세 속에서 대학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 속에서학생들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포착해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학생사회의 여성주의적 재구성, 자치와 일상의 정치를 얘기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그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학우들의 일상에 대해 분석하는 것. 그 일상 속에서는 어떠한 정치가 숨겨져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기호 형의 평가를 따르자면, 현재의 정세 속에서, 그리고 대학이라는 공간 속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신자유주의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지가 대단히 중요한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전에 90년대 저항적 주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작은 토론회를개최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90년대'라는 말이 얼마나 추상적이고애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내 자신과 주위를 봤을 때, 여성운동 (대학에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정세분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분석하고 폭로하고 투쟁해왔던 사안들은 역사적 맥락에서 봤을 때 좀 평면적이지 않았나하는 생각을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한다고 했을때, 여성의노동이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해왔는가, 그것을 기반으로 현재는 어떠한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이지요. 매일 똑같은 얘기만 하게 되고 결국에는문제의식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치단체연석회의를 하고 내년에 선거를 하든 말든 (하게 되면 일단은 선거문화와 시해세척에 대대적인 공사작업이 필요하겠지요) 학생들의 일상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며, 그 일상을 정치적인 것으로 읽어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말을 많이 했지만, 그것 또한 물역사적이고 물정세적이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정세분석이라는 것이 꼭 거시적인 것만은 아니니까요.

논문을 마저 쓰려고 집에 아직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이런 저런 얘기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네요.

참새상 통신방 이용이 잘 되어가면, 다른 통신에다가도 (나눠)방을 만들어도 좋겠어요. 처음 글 쓰는 사람이 너무 욕심부리나?

제목:(업신기호)요새 제가 쓰고 있는 글의 내용중에 일부를...

올린이: tswith(여성자치) 99.01.07 02:14:50 조회: 17

이번에 제가 어디서 강의할 원고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는 것이 좋을 듯하여 올립니다.

이번 연세대학교의 총학생회 선거에서의 기숙사 고사동 논쟁을 예를 들어보자. 사실 이 말을 한 여성행동팀은 자기자신들은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 '전체 고시생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발언은 말한이의 위치를 '전체 고시생'의 대표자/대변자라는 자리와, 언제나 '전체' 남자들의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페미니스트들과 대립하는 자리에 발화자를 위치시킨다. 그러나 이런 자신들의 위치는 교묘하게 은폐되고 중립화되어 있다. 이것이 중립화되는 방식과 그 정치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이 담론은 한편에서는 페미니스트 - 여성행동 - 를 늘 남성과 사사건건 대립하고 편협한 족속들로 몰아간다. 이를 통하여 지배적인 페미니스트들의 이미지를 강화-재생산한다. 이를 통하여 이들의 위치는 이 반대편에 위치하게 된다. 즉, 자신들의 이미지를 보다 부드럽고 타협적인 쪽-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의 반대편 위치 -으로 재현하여 페미니스트들의 고정적 이미지에 불편함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여성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는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 대립의 축은 하나의 의견과 다른 하나의 의견의 충돌이라는 형식을 따르지 않는다. 대신 그 대립의 축은 편협한 의견과 공정한 의견의대립이라는 형식을 띠게 만든다. 즉, 여성행동의 발언은 극단적이고 편협하다고 계속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발언은 중립적인 위치에서의 객관적인 판단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담론 구조속에서 두가지 담론은 이미 불균형한 위치속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단지 두가지의 담론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전체 담론 구조속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 두 담론이 불평등하게 경쟁하는 것이다. 사실이처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진술이란 언제나 대립하고 있는 담론을 편협한 극단으로 몰아 자신과 대립시킴으로서 대립의 부정적인 반사적 효과를 노린다.

그렇다면 이런 불균형한 대립을 깨뜨리는 언어적 전략은 무엇인가?이것은 다음에 올릴게요...궁금한가??^^

궁금하면 연락하세요...그래야 올리지...아무도 안 궁금한데..

혼자 쓰면 쑥쓰러우니깐..